인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 현황

국내의 활발한 CDM 사업을 기반으로 거래소 운영

세계 2위 규모 CDM 사업이 거래소 운영의 기초

인도는 CDM 사업에 있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기후변화시장을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는 교토 의정서에 의거한 CDM 프로젝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국내 발생 탄소 크레딧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위해 탄소파생상품거래소 개설을 준비해왔다. 우선 각종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하는 상품거래소(MCX, Multi Commodity Exchange)는 2005년 9월부터 시카고기후거래소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 탄소파생상품거래소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총 11개의 상품거래소 및 기후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원활한 거래를 위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도의 기후변화시장 참가는 2005년 3월 바도다라 지역 소재 Gujarat Flurochemicals Ltd(GFL)가 처음으로 CDM 프로젝트를 등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인도의 CDM 시장은 훌쩍 성장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MCX가 시장을 개설한 당시 연간 거래 규모는 약 50~100억 달러 사이로 201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였으나, 2009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활성화 위해 표준화된 규율 조건 필요

탄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모든 금융자산이 그렇듯이 탄소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유통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08년 CDM 탄소시장의 CER 발행 물량은 3억 8,900만 톤으로 2007년 발행실적을 하회하였으나, 유통시장을 통한 거래량은 10억 7,200만으로 발행 규모를 훨씬 웃돌았다. 유통시장이 발행시장의 10~20배인 전기와 가스, 30배인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의 사례를 보았을 때, 탄소 유통시장도 높은 잠재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통시장이 OTC(Over-the-counter)시장처럼 표준화된 규율 조건이 없을 경우, 시장가격의 발견과 거래 투명성, 신용리스크 평가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시장 참가자의 거래 용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 크레딧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장 참가자는 원하는 물량

을 원하는 시기에 딜리버리 받을 수 없고 인도시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탄소 크레딧의 구매자, 국제 중개인, 트레이더, 은행 등 다양한 거래 참가자가 손쉽게 시장에 참가해 거래량을 높이고 시장 가격 신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장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가 탄소 거래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의 CDM 사업 참가자가 얻게 되는 CER 크레딧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탄소 거래소 도입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풍부한 CDM 시장의 사업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2008년 1월 아시아 최초로 탄소 파생상품 거래소를 설립하였다. 동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신규 제도 도입, 정보교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탄소 파생상품 거래시장이 교토의정서 부속서 1에 명시된 국가들의 탄소 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인 만큼, 인도 원자재 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탄소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참가를 허용하였다.

또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Carbon Market Conclave"라는 탄소시장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확산하고 신규 투자가 촉발되도록 간접지원을 하고 있으며, Carbonyatra.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인도 탄소시장에 대한 현황과 최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조성하였다.

탄소시장의 활성화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동시에 발전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CDM 컨설팅사들은 중소기업의 시장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소수 기업만이 참가하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다수기업이 참가해 시장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기존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성화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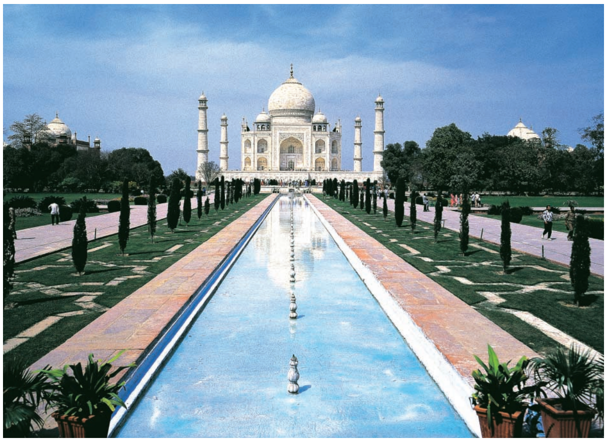
거래소인 MCX는 에너지 사용수준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펄프 및 제지 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CDM 사업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농업과 에너지, 금속제련, 광물 채굴, 화석 연료 소각, 화학, 조림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다수는 아직까지 초기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실제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2008년 초반 델리지하철공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리제네레이팅 브레이킹 시스템을 활용해 CDM 사업을 등록, CER 크레딧을 획득한 것이다.

인도 탄소시장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 개설 움직임과 공공 부문과 사부문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탄소시장 도입 위해 유통시장의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 필요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인도보다 더 다양한 사업기회가 있음에도 유통시장의 부족으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가 없음에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사업 기회뿐 아니라 신용리스크나 프로젝트 가버넌스, 리드타임에 대한 제약 없이 표준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헷징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세계기후변화 관련 시장에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처럼 거래시장 도입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획특집
정책동향
최신녹색기술
그린산업투자동향
최신환경규제뉴스
주요인사인터뷰
환경전시회르포